

SPECIAL ARTICLE

입원전담전문의 도입 취지와 소화기내과 입원전담전문의 역할

김준환, 송태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내과

Introduction of Hospitalists and Their Role in Gastroenterology

Jun Hwan Kim and Tae Jun Song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Asan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A hospitalist system in Korea began in August 2016. Patient safety issues, resident law, and reduction of resident numbers in Korea are leading to an increase in the demand for hospitalist in Korea.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GI hospitalists have not been established. Therefore, cooperation among the Korean society of gastroenterology, each hospital, and government is necessary.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to prepare an education program for gastroenterology hospitalists. (Korean J Gastroenterol 2019;73:245-247)

Key Words: Hospitalists; Gastroenterology; Inpatients

서론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 환자 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전문의를 지칭하며, 입원 환자의 초기 진찰부터 경과 관찰, 상담, 퇴원 계획 수립 등 입원부터 퇴원까지 입원 환자의 진료를 책임지는 전문의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입원전담전문의는 미국의 호스피탈리스트에서 기원한 용어이다. 미국에서는 1996년 Wachter와 Goldman이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처음으로 호스피탈리스트(hospitalist)라는 용어를 도입하였다. 1996년 당시 미국에서는 전공의 근무 시간 제한, 환자 안전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배경으로 호스피탈리스트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후 호스피탈리스트의 수가 많이 증가하고 그 역할도 확장되었다. 2017년 말 미국에서 근무하는 호스피탈리스트 수는 약 6만 여명에 달하며 Hospital Medicine (입원 환자에게 포괄적

인 의료를 제공하는 것에 전념하는 전문 의학 분야)를 전문의로 하는 의사의 개념으로까지 확장되었다.¹

한국형 입원전담전문의는 2015년 8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외과학회 공동으로 '한국형 호스피탈리스트 시범 사업 운영, 평가 협의체' 구축 및 시범 사업을 통하여 처음 시작되었다. 이후 2016년 8월 '한국형 입원전담전문의' 시범 사업이 시작되었고 2019년 3월 현재 전국 25개 대학병원의 내/외과계에 101명의 입원전담전문의가 근무하고 있다.^{2,3}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환자 안전 문제, 2017년 12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전공의법, 2020년부터 모든 내과 전공의가 3년제만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상황(외과는 2022년부터 모든 외과 전공의가 3년제만으로 운영됨)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 제도이다. 위

Received March 23, 2019. Revised April 13, 2019. Accepted April 15, 2019.

©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 © 2019. Korean Society of Gastroenterology.

교신저자: 송태준, 05505,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내과

Correspondence to: Tae Jun Song,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Asan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88 Olympic-ro 43-gil, Songpa-gu, Seoul 05505, Korea. Tel: +82-2-3010-3914, Fax: +82-2-476-0824, E-mail: drsong@amc.seoul.kr, ORCID: <https://orcid.org/0000-0002-6156-8746>

Financial support: None. Conflict of interest: None.

*이 종설은 2019 대한소화기학회 춘계학술대회 강의를 기초하였으며, 대한소화기학회 편집위원회에서 대한소화기학회지에 특별기고로 게재하는 것에 동의함(This manuscript is based on 2019 Spring Seminar of the Korean Society of Gastroenterology. The Editorial Board of Korean J Gastroenterol agreed to publish this manuscript to Korean J Gastroenterol as a special article).

사항을 바탕으로 입원전담전문의의 도입 취지를 알아보고 소화기내과에서의 입원전담전문의의 역할에 대하여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⁴

본 론

입원전담전문의의 제도는 환자 안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 새로운 전공의법, 내/외과의 수련 기간 단축에 따라 그 역할과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자 안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은 2016년 7월 29일 '환자 안전법'이 시행되면서 환자 안전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었고 사회적 관심 또한 고조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입원전담전문의의 제도는 입원 환자의 진료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재원 기간 단축, 재입원을 감소 등 환자 안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함으로써 국민적인 관심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이다.⁵

또한 2017년 12월 23일부터 전공의법 제7조까지 발효되면서 전공의 수련 시간이 주당 최대 80시간으로 제한되었고 2017년부터 내과 전공의의 수련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었으며, 2019년에는 외과 전공의의 수련 시간 또한 3년으로 단축되었다. 전공의 근무 시간 제한과 내/외과 전공의의 수련 시간 단축은 그동안 전공의가 입원 환자를 주로 진료하던 현실을 고려할 때 입원전담전문의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만드는 요인들이다.⁶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시범 사업이 시작된 지 2년이 넘은 2019년 3월에도 아직 전국의 입원전담전문의는 101명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2018년 8월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 입원전담전문의 협의회에서 진행하였던 입원전담전문의 실태조사에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입원전담전문의들은 입원전담전문의의 지원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로 직업 안정성(50%), 레지던트가 하는 업무를 지속한다는 심적 부담(41.7%)을 들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병원은 입원전담전문의의 병원 내 역할 정립(87.5%)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정부는 제도적 뒷받침(75%) 및 수가 인상(70.8%)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잠재적인 입원전담전문의 지원자인 전공의들은 입원전담전문의 진로의 가장 큰 단점으로 불안정한 고용(83.33%)과 불확실한 진로(58.89%)를 선택하였다. 위의 실태조사를 고려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소화기내과에서의 입원전담전문의의 역할 정립과 책임 범위에 대하여 대한소화기내과 학회, 각 병원의 소화기내과 그리고 정부의 고민이 필요하다.

초기에 대부분의 일반내과(General Internal Medicine) 전문의로 운영되었던 미국의 hospitalist 제도는 현재 심장내과, 소화기내과에서의 subspecialty hospitalist까지 진화한 상태이다. 특히 미국의 소화기내과 hospitalist는 급성 위장관

출혈과 같은 급성기 소화기 환자 진료, 만성 간질환의 합병증 대처와 같은 만성 소화기내과 질환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7,8}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화기내과 입원전담전문의의 시범 사업 병동은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운영되고 있고 여러 병원의 응급 병상 및 급성기 병동에서 또한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명확하게 정립된 소화기내과 입원전담전문의의 역할과 책임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소화기내과 영역에서 입원전담전문의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소화기내과 세부 분과 수련에서 훈련된 내시경 술기를 입원전담전문의 영역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와 기존 소화기내과 교수진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우리나라의 입원전담전문의는 환자 안전, 전공의 근무 시간 제한, 내/외과 수련 기간 단축을 고려하였을 때 그 필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고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제도이다. 대한내과학회의 '내과 입원전담전문의의 수요 추계'에 따르면 입원전담전문의는 100병상을 기준으로 20년 후에는 4,000명에서 5,000명까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⁹ 소화기내과에서 근무하는 입원전담전문의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입원전담전문의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대한소화기학회, 각 병원의 소화기내과, 정부 간의 상호 협력이 필요하며 특히 학회에서는 소화기내과 입원전담전문의의 양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¹⁰

REFERENCES

1. Wachter RM1, Goldman L. Zero to 50,000 - The 20th anniversary of the hospitalist. *N Engl J Med* 2016;375:1009-1011.
2. The key to the success of hospitalist is job security. [Internet]. Seoul: Daily medi; [updated 2018 Aug 29; cited 2019 Mar 9]. Available from: <https://www.dailymedi.com/detail.php?num=834124>
3. The number of hospitalists exceeds 100. [Internet]. Seoul: Young Doctor's paper; c2019 [updated 2019 Mar 9; cited 2019 Mar 9]. Available from: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6042>
4. Kim JH. Practical experience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hospitalist system in gastroenterology. 2018 Spring Seminar of the Korean Society of Gastroenterology; 2018 Apr 15; Seoul, Korea.
5. Institute of Health Services Research of Yonsei University.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and the evaluation of Korean hospitalist system to improve the quality of hospitalization.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18 Apr 30; Seoul, Korea.

6. Yoon IG. Current status of Korean hospitalist system and improvement proposal. Seoul: Yoon In Gyu Office, 2018.
7. Padhya K, Schembre DB, Brandabur J. Effect of a dedicated GI hospitalist on outcomes in acute upper gi bleeding: a single center experience. *Gastroenterology* 2017;152(Suppl 1):S226-S227.
8. Desai AP, Satoskar R, Appannagari A, et al. Co-management between hospitalist and hepatologist improves the quality of care of inpatients with chronic liver disease. *J Clin Gastroenterol* 2014;48:e30-e36.
9. Predicting hospitalist demand. [Internet]. Seoul: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l Medicine; c2016 [cited 2019 Mar 9]. Available from: <http://www.kaim.or.kr/hospitalist/?sn=5&sn2=2>
10. Goodwin JS, Salameh H, Zhou J, Singh S, Kuo YF, Nattinger AB. Association of hospitalist years of experience with mortality in the hospitalized medicare population. *JAMA Intern Med* 2018; 178:196-203.